

# 확 달라진다더니... 1층 매장 할인판매대만 즐비

개점 3개월 이랜드 NC백화점 광주점

## 일부 브랜드 빠져나가 곳곳에 빈 매장 허술한 운영에 중장년 고객 대거 이탈

이랜드그룹이 광주 진출의 교두보로 삼은 NC백화점 광주점이 개점 3개월이 다 되는 데도 허술한 운영과 차별화되지 못한 서비스로 지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역민들은 고품격 백화점의 전통을 잇고 유통업계 다크호스로 희망을 갖고 유통업계 다크호스로 희망을 가졌던 NC백화점의 실망스러운 영업 행태에 실망감마저 감추지 못하고 있다.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디테일(대표이사 윤여영)은 지난 6월 ㈜송원과 위탁경영이 만료된 현대백화

점 광주점을 NC백화점으로 간판을 바꾸고 영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운영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NC백화점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여 기존 고객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까지도 유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개장 3개월이 다 되가는 21일 현재 백화점 곳곳에 현대백화점 시절 입점해 있던 브랜드가 상당수 빠져나간 이후 신규 브랜드가 입점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백화점의 얼굴인 1층 매장엔 기획·행사상품 할인판매대만 즐비하게 있어 '백화점 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수입화장품 매장이 대부분 철수한 백화점 1층은 일부 국산 화장품 브랜드만 자리를 지키고 있고 구두와 핸드백, 의류 등 할인 판매대만 즐비했다.

또 매장이 철수된 자리는 오는 9월 매장 리모델링을 위한 가림막이 불성사납게 설치돼 있어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5층 남성 매장에는 마에스트로, 헤지스, 캠프비지 캐주얼 등 주요 브랜드가 철수한 자리에 신규 브랜드들이 입점하지 않고 있어 열 매장 행거들로 구색을 맞추는 실정이다.

NC백화점이 입점 한 후 달라진 점이라면 병행수입 상품을 판매하는 '럭셔리 갤러리'가 1층에 들어서 버버리, 구찌, 샤넬, 페라가모 등 명품 브랜드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다.

NC백화점으로서의 운영권 변경에 따른 고객 감소와 직원들의 인원변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대백화점 당시 특수고객이었던 기아차 임·직원의 상당수가 할인 혜택으로 고객 유치에 나선 롯데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용하고 럭셔리한 현대백화점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선호했던 30대에서 50대까지의 중·장년층 주고객의 일부도 새로 바뀐 NC백화점의 젊은 층 타겟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거 이동하는 있다는 분석이다.

또 매장 철수로 직원들이 대거 떠난 빈 자리를 채우지 못해 새로 이름을 바꾼 백화점임에도 불구하고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옛 현대백화점의 VIP 고객이었다는 한모(56)씨는 "NC백화점으로 바뀐 후 한동안 찾지 않았다가 다시 와

봤는데 우선 분위기가 혼란스럽고, 기존 매장을 고쳐 줬음은 좋지만 이랜드그룹 자사 브랜드로 채운다고 하니 내 입장에서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화점측과 임대매장의 직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백화점은 끝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백화점 내의 한 임대매장 매니저는 "백화점 이름이 바뀐 뒤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건 사실이다"며 "앞으로 자리를 잡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관련 백화점 관계자는 "NC백화점은 광주 진출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며 "대대적인 리뉴얼 공사가 완료되면 확 달라진 모습으로 고객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벌초 대신해 드립니다

전남 90개 지역농협 대행 서비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중수)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가 어려운 출향민 등을 대신해 산소 관리 대행서비스를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지역 22개 시·군 90개 지역농협에서 마을청년회나 영농회 등 농협과 관련한 조직이 전담해 실시하고 있다.

대행 비용은 차량진입 기준, 작업내용, 위치 등에 따라 5만~12만원 선이다.

또 고객이 원하면 벌초가 끝난 묘소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누리집에 올려주고 있다. 벌초 대행 외에도 석물 설치, 사초(봉분)을 다시 높이거나 잔디를 새로 입히는 작업, 이장, 가묘, 조경 서비스 등도 병행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농협장래지원단 홈페이지(www.jangrae.co.kr)를 통해 해당 지역 농협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전남농협(061-289-7134)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중수 전남농협 본부장은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어 해마다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추석이 임박하면 마을 주민들도 자신의 집안 벌초에 집중하기 때문에 일찍 신청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 7월 광주·전남 무역 7억5000만달러 흑자

광주·전남 지역의 7월 무역수지가 수출호조에 힘입어 7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본부세관이 '2013년 7월 광주·전남 무역수지 동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한 49억7000만달러, 수입은 약 13% 증가한 42억2000만달러로 7억50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7월 말까지 누계기준으로는 수출 336억달러, 수입 291억달러로 45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은 반도체와 수송장비가, 전남지역은 석유제품과 수송장비가

각각 수출호조를 보여 무역수지 흑자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한 12억7000만달러, 수입은 7% 증가한 4억7000만달러로 무역수지 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92%), 동남아(67%), EU(25%) 등 수출은 증가한 반면 일본(38%), 중동(34%)으로의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71%), 철강제품(10%), 수송장비(8%)가 증가한 반면 가죽·고무·신발류(13%), 가전제품(5%), 기계류

와 정밀기기(5%)는 감소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한 36억9000만달러, 수입은 14% 증가한 37억4000만달러로 무역수지 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호주(78%), 미국(46%), 동남아(26%), EU(24%), 중국(6%)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중남미(50%), 중동(42%), 일본(18%)은 줄어들었다.

수출 품목은 수송장비, 기계류와 정밀기기, 전기·전자제품, 석유제품 등이 증가한 반면 철강제품의 수출은 줄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코스피 이틀 연속 급락 아시아 신용국 금융위기 우려 탓에 21일 코스피는 20.39포인트(-1.08%) 하락한 1867.46으로 마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 /연광뉴스

## 한국 반덤핑 피소 세계 2위...1년새 2배 가까이 증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기업의 반덤핑 피소 건수가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투자협회와 세계은행(WB), 삼성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반덤핑 피소 건수는 21건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았다.

1위는 중국(56건)이었으며 대만은

한국과 같은 21건이었다.

그 외 태국(10건), 인도(9건), 베트남(8건), 미국(7건), 일본(6건), 인도네시아(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피소 건수 중 신청사건은 168건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신청 피소 건수는 14.3%(28건)로 훨씬 낮았다. 신청국 중에서도 한국이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다. 한국의 반덤핑 피소 건수는 전년 11건에서 21

건으로 급증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은 5건에서 6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일본은 작년 3.06%로 3년 연속 3%대에 머물렀다. 중국은 2010년 25.82%, 2011년 30.99%, 작년 28.57%로 높았지만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한국에 대한 견제가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광뉴스

▼ 코스피지수 1867.46 (-20.39)	▼ 코스닥지수 530.54 (-7.03)	▲ 금리 (국고채 3년) 2.97% (+0.03)	▼ 원·달러 환율 1117.40원 (-3.40)
--------------------------	------------------------	-----------------------------	----------------------------

## 기아차 스펙 안보는 '커리어 투어' 도입

하반기 일부 신입사원 자기소개서만으로 채용

기아자동차가 신입사원 일부를 자기소개서만으로 선발한다. '스펙' 중심 채용에서 벗어나 개성과 독창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기아차는 21일 올 하반기 공채부터 성격이나 외국어 능력, 자격증 등 이른바 '스펙' 대신 지원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새로운 채용 프로그램인 '커리어 투어'(Career Tour)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커리어 투어는 지원서 작성부터 합격까지 입사의 모든 과정을 여행에

비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Kareer'는 기아(Kia)와 경력(Career)의 합성어다.

커리어 투어를 통한 채용 신청은 다음달 2~10일 기아차 채용 사이트(recruit.kia.co.kr)에서 접수하며 ▲대졸 공채 ▲인턴 채용 ▲스카우트(S-cout)-K 등 3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이뤄지는 대졸공채와 인턴 채용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일정 비율을 스펙과 무관하게 자기소개서만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대한상의 회장 취임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공식 선출돼 취임식을 가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오전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조성재 부산상의 회장의 사회로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을 만장일치로 대한상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박 회장은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대한상공회

의소 회장이 된 데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앞으로 상공업계의 권익대변과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

# 지리산 노블랜드

잔여세대 분양중

**산 좋고 물 좋은 백운산 400고지**

콘도/팬션/별장/요양시설

귀농자, 요양자 10%할인

국유지 필요평수 임대 가능 (산삼, 약초, 산나물, 텃밭 사용)

화재장터, 썩게사, 화염사, 노고단 근접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H. 010-4451-6686 / 법무사 직접상담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840만원	18평 3000만원 가능
28평(26실) 1억 640만원	28평 5000만원 가능
56평(1실) 2억 1280만원	56평 1억원 가능

**지리산노블랜드 분양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직통 : 010-3605-5000 / (주)오천경매

#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 구 352-7788

남 구 676-7719

북 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 천 744-8605

여 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